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p>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남) 안성현 조대회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석³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노영진 (여) 이미경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황금란</p> <p>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p> <p>협동 목사/ 문신현</p> <p>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김진주</p> <p>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p> <p>지교회 교역자/ 문태규 정철수 이행업 박흥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한준 김혜경 차찬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상휘</p>	<p>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명호, 폴 무사피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시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태반 한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승, 마크 바질레프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비탈리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판: 조찬형, 성 숙,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골: 발저리 푸레브, 안흐바야라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이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월슨 존 길, 타리크 지아 중 동: 보나 시두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소프</p> <p>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빈성건 이동립 최종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춘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왕근 김진홍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휴용 윤성식 김기호 박흥열 박영갑 김봉완 홍명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성 황병현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혁수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구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택 윤부열 박중용 송영현 이성의 정명호 정용필</p> <p>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종 최신일 한병용 나종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명옥 배철호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p> <p>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채</p> <p>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중용 나 사 랫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돌 성가대: 서승원 膩시오케스트라: 김한구</p> <p>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p>
--	--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115장 1절	다 같 이
* 성시교독 57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122장	다 같 이
기 도	김진홍 장로
성경봉독 마태복음 2:9~11	사 회 자
찬 양 사랑의 주가 오셨도다/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세 가지 선물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52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설 교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설 교 자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임학영 목사

대표기도	이미영 목사
성경봉독	디모데후서 2:15/ 사회자
찬양	기뻐하라/ 샬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서승원 집사
설교	일꾼의 자격(2)/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정현진 목사

대표기도	차경숙 전도사
성경봉독	디모데후서 4:7~8/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후회 없는 삶/ 임학영 목사

송구영신예배

2022-2023

토요일 오후 10시

사회/ 임학영 목사

1부 예배

대표기도	이복님 원장
성경봉독	여호수아 1:6~8/ 사회자
찬양	연합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장로회 중창팀
설교	강하고 담대하라(신년 기도제목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2부 축복기도

2-9회 11차 작정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님 원장
기간/ 2022년 12월 26일(월) ~ 2023년 1월 15일(주일)
주제/ 2023년 7가지 기도제목, 은사집회를 위해

새벽 예배

※ 추후 공지 시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이미경 목사	최종태 장로
주일 저녁예배	조혁희 목사	이영인 전도사
수요 예배	노영진 목사	정규원 목사
금요 철야예배	조대희 목사	김상휘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3)
 본 문 : 민수기 6:22~27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자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혹시 살인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살인할 마음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았지요. 육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도 살인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요일 3:15).

이 살인하는 마음만 버려도 많은 담이 헐리지요. 그동안 마음에서 파생된 시기, 질투, 판단, 정죄, 혐기, 다툼으로 쌓았던 담도 함께 헐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굵은 뿌리를 뽑으면 그것에 달린 잔뿌리도 함께 뽑히는 것과 같습니다.

살인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온유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응답받지 못하던 많은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근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혹여 배우자 이외의 이성을 볼 때 간음의 마음이나 음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이 있는데 왜 다른 이성을 보고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아직 미혼인 경우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도, 결혼할 상대도 아닌데 그를 보고 정욕이 인다면 이후에 결혼할 상대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십계명 중에 일곱 번째 계명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5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러니 간음, 음욕, 이런 정욕을 다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죄의 속성을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다 해도 이런 것을 마음에 품는 것조차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했지요.

이는 갓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초신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합당치 않은 줄을 알고 신앙의 연륜, 직분과 사명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런 정욕 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마음, 버리기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근본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담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담이 더 높아져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으로 오는 것까지 물리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 아내 한 사람밖에 모르며 “고리타분하다. 어리석다.” 말하는 이들도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후반 절에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한 대로 많은 사람이 쾌락을 좇아 정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점점 사람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지요.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세상 문화 자체가 정욕 적이고 퇴폐적이니 유혹의 요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비진리의 생각까지 벗어 버려야 하지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의 신의를 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반면에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마음으로도 온전히 사랑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한 마음에 정욕이 없다면 자기와의 싸움이 없으니 참으로 평안하지요. 하나님께 민망할 일이 없으니 늘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고 홀로 달려가시는 분들도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로 설 때까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킨다면 얼마나 복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나 높여주시지요. 그러므로 이런 간음의 마음, 음욕의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뽑힐 때까지 불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든 그 죄가 마음에서부터 싫어져야 벗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성령 충만을 입으면 간음, 음욕 이런 마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깨달아잡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싫어지지요.

그런데 이런 간음의 분야가 특히 잘 안 버려지는 분들은 자신의 근본 마음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성장 과정에서 성에 대해 왜곡된 생각이나 지식이 입력되었다면 그런 것을 빼내고 느낌도 바뀌어야 합니다. 혹은 그동안 그릇된 가치관이나 생활방식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직 진리의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나는 간음의 마음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철저히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 친구보다 이성 친구가 더 편하고 좋다거나 이성을 대할 때와 동성을 대할 때의 말투, 행동, 표정이 다른 경우도 있지요.

물론 이 차이가 백 퍼센트 정욕에서 비롯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젖어서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경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혹여 여러분 안에 도적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출 20:15)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중 여덟 번째 계명이지요. 도적의 마음이란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저변에는 내가 수고하지 않고 취하려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지요. ‘나에게는 도적질할 마음이 없는데.’ 확신하는 분들도 한번 깊은 마음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믿음의 형제끼리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해서 가정, 사업 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할 텐데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알면서도 불순종할까요? 많은 수익을 올려 교회의 힘이 되자는 미혹에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결국 깊은 마음을 점검해 보면 수고 없이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욕심이 작용하므로 불순종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교회의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했다고 해도 이익 앞에서 그 마음이 변질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하는 경우, 축복받으려면 반드시 정도를 걸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또한 도적의 마음이지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간과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펜 한 자루, 종이 한 장 등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허락 없이 남의 것을 취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각이 없다면 그 자체가 바로 도적의 마음이지요. 더구나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대도적’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의 뿌리를 찾아서 남김없이 온전히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어떤 미혹을 받아도 결코 불의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믿음과 신뢰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살인, 간음, 도적의 마음만 벗어나도 참으로 많은 담이 혈됩니다. 담대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기꺼이 응답해 주시지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비진리의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미혹이 올 때 큰 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랜

죄악의 담들을 다 헐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근본 문제를 발견하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 명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 돌을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뵈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첫 언약을 세우셨지요.

야곱에게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시고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베게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요. 평안히 자신이 아버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또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베델로 갑니다. 이제는 혈혈단신이 아니라 밧단아람에서 생긴 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과 함께 가지요. 이때, 출발하기에 앞서서 야곱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를 명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후반 절에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지요. 그들은 순종했고 야곱에게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내어줍니다. 야곱은 이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습니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 일행이 베델까지 형통하게 가서 하나님의 명을 이행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야곱이 단을 쌓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처음 베델에서 주신 모든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다시 한번 굳게 언약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정결 의식을 행하고, 곧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뤄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민의 이름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성전,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를 이를 일꾼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이 모든 사역을 창대하게 이룬 후에는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을 얻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혹여 더디 변하는 자기 모습에 낙심하여 이 언약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미련 없이 묻어 보십시오. 상수리나무는 영적으로 믿음을 상징합니다. 곧 믿음으로, 기쁨으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대성전과 새 예루살렘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기까지 형통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베고 자던 야곱과 같은 모습일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의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일꾼의 자격 (1)
 본 문 : 디모데후서 2:15

오늘은 일꾼의 자격 여덟 가지 중 네 가지를 살펴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영혼들을 원수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교구와 선교회라는 두 겹의 조직을 세워 서로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 영혼도 잃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한마디로 영의 일꾼입니다. “영의 일꾼”이란, 영의 마음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보며,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처럼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일꾼이지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아직 어떤 사명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 해도 일꾼의 자격을 갖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더욱이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는 무수한 영혼들이 몰려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1.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선교회나 교구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관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꾼이라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 시간 정도를 더 기도해야 합니다. 즉, 기관장이나 구역장 이상의 일꾼이라면 하루에 최소한 2시간은 기도해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요. 더 나아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3시간 이상 불같은 기도를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20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일꾼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엡 6:12). 반드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그 힘의 능

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원수 마귀 사단의 꾀계를 파할 수 있으며,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영혼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 된 일꾼이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라야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 된 일꾼이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꾼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지 못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선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마 15:14).

2.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십계명 중에도 들어 있지요(출 20:9-11).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온전히 주일 성수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거룩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예배와 저녁예배를 다 드려야 하지요.

예배 시간 외에도 주일에는 세상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세상 오락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은 했는데 줄음과 잡념 속에 있다면 이 또한 온전히 주일을 지켰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요 4:24).

믿지 않는 일가친척의 애경사로 인해 간혹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도 있는데, 이 경우도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인정받지 못할 때는 자꾸만 주일을 범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주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훼방할 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믿음으로 담대히 통과한 후에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요, 세상과 타협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니 그때부터는 주일 성수도 방해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꾼이라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와 금요철야 예배, 찬양예배 등 각종 공예배에 잘 참석함으로 양 떼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3.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성수와 같이 십일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천하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 땅에서 일하여 얻은 소산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요.

예를 들어, 농부가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많은 소출을 냈다 해도, 하나님께서 심을 씨앗을 만드셨고, 또 땅과 햇빛과 비를 주셔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 맺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소득을 얻는 경로가 다양하지만 그 원리는 같습니다. 모든 산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일조를 드리는 행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모든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즉, 우리 소유가 십이면, 십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는 증거로서 그 심본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을 명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말 3:10). “온전한 십일조”란, 단지 급여나 현금 수입의 십일조만이 아니라 선물이나 식사 대접 받은 것 등 모든 수입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일조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일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했는데(말 3:8),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서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저히 도적질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심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자녀들에게 맘껏 축복 주기 원하시는데,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영계의 법칙대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만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중에서도 십일조 생활은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일꾼의 자격으로 온전한 십일조와 온전한 주일 성수를 말씀드린 것은 이 두 가지 사항이 하나님의 자녀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4.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린다”는 것은,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도함으로써 마음 안의 죄성들을 벗어 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은 영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0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볼 틈도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으며 또 하늘에서 얼마나 큰 자가 되어 하나님 사랑을 받게겠습니까.

“피”는 곧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것은 영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는 것 자체가 상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늘에 상급이 쌓이지요.

그러면 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싸워 버리는 만큼 선으로, 영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변화되어 충성하면 같은 일을 해도 더 큰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향입니다. 그런데 육의 마음이 있으면 그 향이 온전히 못합니다. 겉으로는 충성하지만 마음에서는 불편함과 서운함을 품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이 아니지요. 또 기껏 충성하여 상급을 쌓고도, 불평불만의 말을 내어 상급이 깎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를 온전히 버리고 영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니 많은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움”을 버렸다면 마음에 “사랑”이 채워집니다. 이러한 일꾼은 영혼을 심방할 때 당연히 영의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지요. 그러니 힘을 잃고 넘어진 영혼도 다시 힘을 얻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일꾼의 충성이 영적인 열매를 내며 이것이 상급으로 쌓이게 됩니다.

반면에 여전히 영이 아닌 육의 사랑을 가졌다면 오히려 회원들을 육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의와 틀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회원들을 품지 못하므로 오히려 걸리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꾼이 아무리 열심히 심방한다 해도 하늘에 상급으로 쌓일 만한 좋은 열매가 맺히기는 어렵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까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하되, 특히나 머리 된 일꾼이라면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원들을 영으로 잘 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해도 영적으로 더 성결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지금은 영적으로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열매를 드리는 영의 일꾼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과 의를 위해 핍박받은 사도 바울

읽을 말씀 / 고린도후서 11:23~27

외울 말씀 / 디모데후서 4:8

참고 말씀 / 로마서 9:3

교육 내용 /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된 사도 바울을 통해 참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진해졌지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상대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약 시대 최고의 사도로서 권능을 베풀며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순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당대 최고 가말리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자기 의가 아주 강하여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의로써 변론하며 지지 않으려는 성품이었기에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모세와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그 후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볼 수 있었지요.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 앞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선택된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잔해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2. 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감사했던 사도 바울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자 자신이 마치 '죄인 중에 괴수'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귀한 사명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지요. 복음을 전하면서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바울은 주를 향한 마음이 변함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 데 일 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기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며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다 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앞의 뜻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채찍질로 여겼지요. 또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을 뿐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은혜 값을 기회를 주심에 마음 중심에서 감사했습니다.

혹여 여러분은 고난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작은 어려움에 절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모든 것을 드리기까지 헌신했는데 축복이 임하지 않을 때 슬퍼하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 실망하여 포기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어떠한 상황에 부닥칠지라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며 작은 사명이라도 귀히 여기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3. 영혼 사랑이 승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영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면서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며 기도했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도록 눈물로 훈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

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했지요.

여기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란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로서 바울을 핍박하고 훼방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들도 있었지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지언정 자신을 핍박하고 훼방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누구보다 지옥의 참담함과 무서움을 잘 알면서도 이같이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승했기 때문입니다.

4.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찼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술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장차 주님을 뵈 수 있다는 천국 소망으로 넘쳤습니다. 이 세상 무엇도 주님과 는 비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를 위해 헌신하였지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으며 천국 소망 가운데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였지요. 디모데후서 4장 7~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한 대로 천국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후 한 번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했고 순교에 이를 때도 감사뿐이었지요. 착잡한 마음이나 회한이 든 것이 아니었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경직된 심정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곧 뵈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기에 천국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감사했기에 연단을 통해 권능을 받고 대사도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변치 않으며 천국 소망 가운데 죽도록 충성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당대 최고 가말리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으로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2.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3.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27절을 읽으며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바울 서신’이란?

바울에 의해 쓰인 편지들로 신약 성경 27권 중 14권이 이에 해당한다. 즉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가 있다. 특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기록하였다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한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e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은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안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일곱 교회」 네덜란드어가 종이책으로 발간되었고,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체코어가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선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포르투갈어(123호), 우르두어(100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2023년도 교회 기도제목」
 - 1) 강하고 담대하라 (수 1:6~8)
 - 2) 천국을 침노하자 (마 11:12)
 - 3) 마음-성전 (롬 13:10)
 - 4) 재창조의 권능 100% (요 14:11~12)
- 오늘 저녁예배 시 2022년 공로패 수여식이 있습니다.
※ 수상자: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 2023년 정기 사무연회가 오늘 저녁예배 후 위임받은 대표자 당회원, 원로회원, 주의 종,
연합회장단, 선교회장단 이상이 참여하여 온라인 회의로 있습니다. 사무연회
요람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게재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구영신예배가 12월 31일(토) 오후 10시에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12월 30일(금) 금요 철야예배는 송구영신예배 관계로 없습니다.
- 2023년 7가지 기도제목, 은사집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가
2022년 12월 26일(월)~2023년 1월 15일(주일)까지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준비찬양은 오후 8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12월 25일) 다니엘 철야는 없습니다.

- 2023년 1월 은사집회가 1월 13일 금요일 철야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환자접수는 12월 26일(월)부터 2023년 1월 1일(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성도의 영적인 능력 배양과 성경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영적 성장 프로젝트 「2023 전 성도 성경읽기」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기간: 2023년 1월 1일~ 4월 30일까지(4개월 간)
- 교회 직원 “성령 충만 기도회 (인도: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가 12월 30일(금) 오전 10시에 사택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월 추천도서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림북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정선미7 집사(3대대 16교구)(꽃꽃이 봉사: 예배국 꽃꽃이부, 시설관리국)

— << 교구별 현장예배 장소 >> —

일 정		3층 성전	사택 예배실
2022년 12월 25일	대예배	중국대교구	7~10 교구
	저녁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대대교구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1대대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중국대교구, 7~10 교구
2023년 1월 1일	대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중국대교구
	저녁예배	1대대교구	7~10 교구
2023년 1월 8일	대예배	1대대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저녁예배	7~10 교구	중국대교구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향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12/25 일

- 00:00 - '일곱교회 11' 이재록 목사
- 05:00 - '욥기 강해 15' 이수진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2' 이재록 목사
- 18:30 - '꿈을 갖고 이루는 자' 문태규 목사

12/26 월

- 01:00 - '선한 청지기의 마음 2'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3' 이재록 목사
- 08:00 - '믿음의 분량 9' 이재록 목사
- 13: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1' 이수진 목사
- 15:3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6' 이재록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77' 이재록 목사

12/27 화

- 01:00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4' 이수진 목사
- 08:00 - '믿음의 분량 10' 이재록 목사
- 10:20 - '십계명 10' 이재록 목사
- 12:05 - '믿음을 척량하시니 16' 이재록 목사
- 14:00 - '일곱교회 12'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4' 이재록 목사
- 18:00 - '욥기 강해 16'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 공과 26

12/28 수

- 00:00 - '일곱교회 14' 이재록 목사
- 01:00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3'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요한계시록 강해 60'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12:05 - '믿음을 척량하시니 17' 이재록 목사
- 14:00 - '일곱교회 13' 이재록 목사
- 15:3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8'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5'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70' 이재록 목사

12/29 목

- 01:00 - '일꾼의 자격 1'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6' 이재록 목사
- 08:00 - '믿음의 분량 12' 이재록 목사
- 10:20 - '육체의 결여 2' 이재록 목사
- 12:05 - '믿음을 척량하시니 18' 이재록 목사
- 13:00 - '공부 잘하는 비결 11' 이재록 목사
- 15:3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9' 이재록 목사
- 19:20 -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1' 이수진 목사

12/30 금

- 08:00 - '믿음의 분량 13' 이재록 목사
- 10:20 - '육체의 결여 3' 이재록 목사
- 13:00 - '전도 1'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7' 이재록 목사
- 19:00 - 천지창조의 섭리 23
- 20:40 - 에스토니아 연합대성회 2

12/31 토

- 14:00 - 2022 부활절 특별 찬양
- 15:30 - 2022 만민 하계 수련회 캠프 파이어 1
- 18:15 - 2022 창립 축하 공연
- 21:40 - 송구영신예배(생방송)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824-7107, 1577-2073 / webmaster@gcntv.org

※ KT olleh tv 882번 및 유튜브 GCN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번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번
- 3분 설교_ 30번
- 환자 기도_ 40번, 41번(영어), 42번(영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번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번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Dec. 25(Sun.)

(Acts 4:12)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e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 Dec. 26(Mon.)

(Acts 16:31) “They sai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 Dec. 27(Tue.)

(Acts 20:24) “But I do not consider my life of any account as dear to myself, so that I may finish my course and the ministry which I received from the Lord Jesus, to testify solemnly of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 Dec. 28(Wed.)

(Romans 1:17)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 Dec. 29(Thu.)

(Romans 1:20)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His invisible attributes,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through what has been made, so that they are without excuse.”

- Dec. 30(Fri.)

(Romans 2:13) “For it is not the hearers of the Law who are just before God, but the doers of the Law will be justified.”

- Dec. 31(Sat.)

(Romans 5:8)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금주의 성경구절

12월 25일(주일)
(행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12월 26일(월)
(행 16: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12월 27일(화)
(행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2월 28일(수)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2월 29일(목)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12월 30일(금)
(롬 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2월 31일(토)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육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어난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년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임문편 1

내가 사행하니/ 임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임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픔아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뉘게 보내리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제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영약/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계명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앙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자혜의 샘/ 장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데스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자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갈뚝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간추려진 만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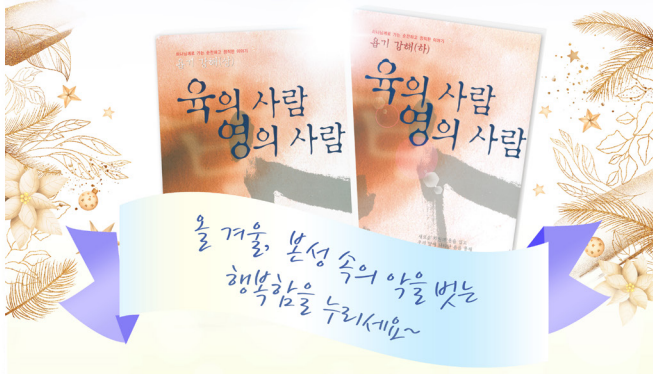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12월 WINTER 추천도서



12월 추천도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하)>

URIM BOOKS www.urimbooks.com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야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회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심계명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젖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